

# 강진 '화물차 유치' 연 50억 수입

## 차고지 무상제공 800대 이전 자동차세 등 자치 재정 일조

“인구 전입만 환영하는 것 아닙니다. 화물차도 환영합니다” 강진군이 대형 화물자동차 유치 전략으로 짜놓은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강진군은 관내에 차적지를 두고 있는 800여대의 대형 화물차에서 주행세와 자동차세 등 연간 50억원이 넘는 재정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21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주변 타 지자체가 10

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운송업체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차고지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대도시 주변에서는 높은 땅값 등으로 차고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역 내 폐교와 개인 소유부지를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화물차 유치가 나섰

특히 강진이 목포~부산을 비롯해 목포~광양, 제주~완도~서울을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로 옛부터 서남부 지역 대표적 교통 요충지인 점을 적극 활용했다.

이같은 유치 노력으로 최근 2~3년 새 수도권 및 부산 등지에서 500여대의 차량과 30여개 화물 운수업체가 차고지와 주소지를 강진으로 이전했다.

군은 이와 함께 2009년까지 성전면 일대 13만여㎡의 부지에 2천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및 물류단지를 조성해 '화물차 천국'을 만들 계획이다.

대부분의 화물자동차 물류단지가 민간업체에 의해 조성, 운영되고 있

으나 지자체가 건설에 나선 것은 강진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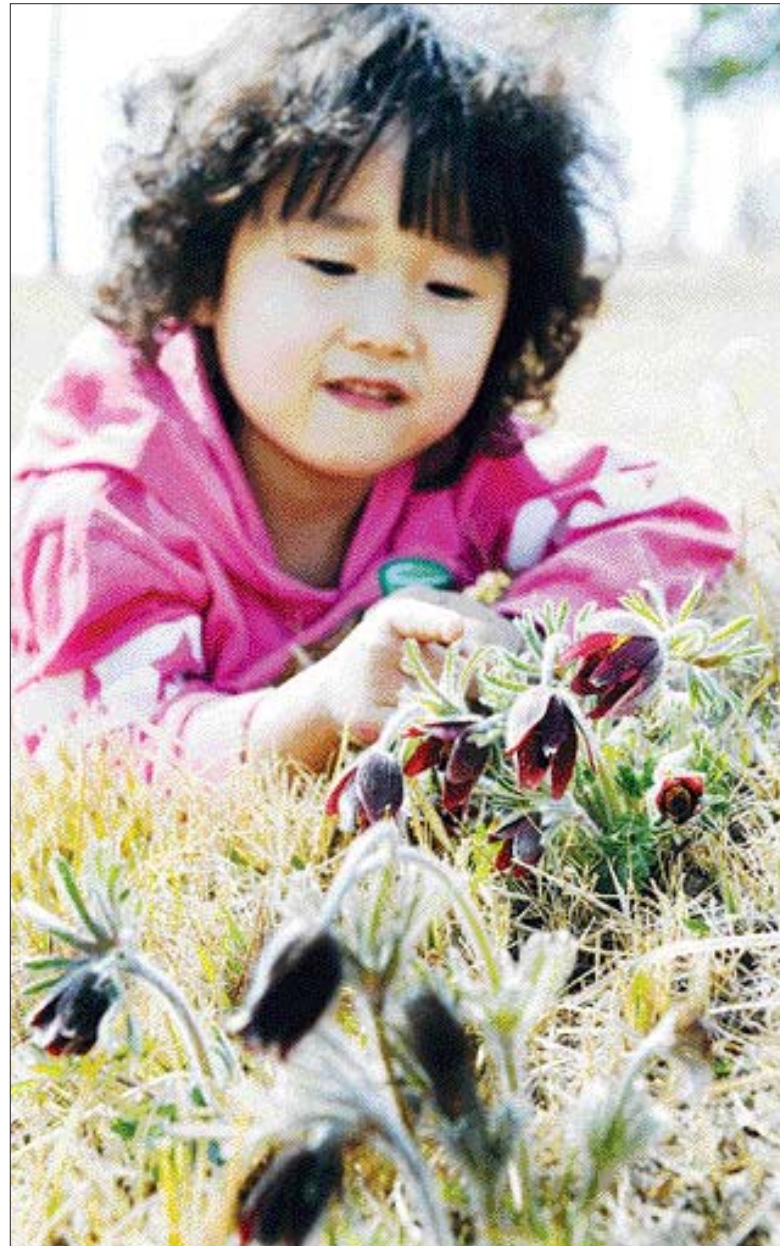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24개 업체, 800여 대의 차량이 주 사무소를 강진으로 옮기는 등 연간 20억 원대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영세한 운송업체의 사정을 감안, 차고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임대해 줄 계획이며 수면실, 운동실, 사우나실 등 운전원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를 늘리는 일 못 지 않게 화물차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에 버금가는 직·간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장흥 할미꽃 봄나들이 축제



할미꽃 자생단지인 장흥군 회진면 한재공원에서 한 어린이가 꽃송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한재공원에서 지난해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장흥 할미꽃 봄나들이 축제'가 열리고 있다. /위직탐기자 jrwi@kwangju.co.kr

## 실버댄스 경연

올함평 나비 익스포  
1위 팀 상금 200만원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기간인 5월 8일 열린다.

함평군은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엑스포장 주무대에서 '제 4회 나비와 함께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종목은 댄스 스포츠와 노인체조 등 특별 1종목이며 남녀 구분없이 65세 이상 16명으로 구성된 생활운동팀이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jeonnam.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이나 우편, 팩스(061-320-3527) 등으로 오는 10일까지 함평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1위 팀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2위 1팀, 3위 1팀, 인기상 1팀, 특별상 3팀, 장려상 등 우수 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의(061-320-3548)  
/함평=박진표기자 pyj4079@

## '바다의 미네랄' 함초를 아세요?

장흥군이 갯벌에서 자라는 함초(사진)를 대체작물로 발굴, 본격 육성에 나선다.

장흥군은 올해 삼산 간척농지 7ha에(주) 에이치씨 바이오텍(대표 윤병제)을 통해 함초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중에 재배단지 기반정비와 파종을 끝내고 10월께 수확 및 가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산 간척사업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89%의 공적률을 보이며 내부 개답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함초 재배는 대체작물 발굴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간척지 염분을 제거하는 제염효과

## 고혈압 등 순환기 질병 효능 장흥군, 벼 대체작물로 육성

와 가을철 단풍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초는 분말 환, 소스 용도로 다양하게 제품개발이 가능하며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함초는 갯벌이나 염전바닥에 무리지어 자라는 한해살이 풀로 고혈압·심장병 같은 순환기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영암왕인문화축제 구림마을에

## '전통문화 체험 존' 운영

### 전통혼례 등 다채

오는 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2008 영암왕인문화축제' 때 2천200년 역사의 구림마을에 '전통문화 체험 존'이 운영된다.

'전통문화 체험 존'에서는 전통혼례, 종이공예체험, 전통 한옥민박체험, 시골 밤하늘 별 관망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6일 오후 1시 44분 전통의 구림마을 대동계사에서 신랑 유상준군과 신부 전해영양의 결혼식이 왕인촌주민자치회(회장 최남호) 주관으로

치러진다.

또 관광객들이 새신랑 새신부가 되어 혼례식을 치르는 전통 혼례체험과 한지를 가지고 연필꽃이, 손거울 등을 만드는 종이공예체험, 전통한옥민박 체험 등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구림마을은 왕인박사, 도선국사 등이 탄생한 마을로 한반도 최초의 사유도가 발상지인 구림도기 가마터와 회사정, 죽림정, 간죽정, 죽정서원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총선 투표 참여·하이패스 홍보



한국도로공사 무안영업소가 최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18대 총선 투표 참여와 금품 선거 빙지를 위해 자체 제작한 유인물 및 하이패스 홍보 명함을 배포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 "남도 여행하고 승용차 경품 타세요"

광주·전남 관광지 170곳 '남도 투어러리'  
최다 답사자 등 330명 추첨 경품 등 제공

전남지역 관광지를 많이 돌아보는 사람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2008 남도 투어러리(Tour Rally)'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30일까지 9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남도 투어러리'는 광주·전남 관광지 170곳에서 사진을 찍은 뒤 이를 홈페이지(www.tourrally.co.kr)에 올리면 최다 답사자를 선정하고 추첨을 통해 33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올해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봄, 여름, 가을 별로 2명씩 모두 6명의 최다 답사자에게 기자자동차 모닝을, 차순위 6명에게는 보성다비치콘도 회원권 등 파격적인 경품을 제공한다.

3월말 현재 146개팀에 252명이 신청해 38곳을 방문한 '바람처럼'팀이 1위를, 29곳을 방문한 '여행 찾기'팀이 2위를 달리고 있다.

'봄철 투어러리'는 3월부터 5월 까지 실시돼 6월 5일 최다 답사자

2명을 선정, 기자자동차 모닝과 보성다비치콘도 회원권을 지급한다. 또 추첨을 통해 106명을 선정해 무안CC 1팀 1일 이용권, 무안~상해 왕복 항공권, 진한경실 1년분이 지급된다.

광주·전남 거주자를 제외한 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 관광지 170곳을 선택해 여행하면서 포토 포인트에서 사진을 촬영,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특히 참가자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최다 답사자와 참여자 개인의 순위를 검색할 수 있다.

/재희기자 chae@

# 미도

정통 日食

## 확장기업

정통 日食 미도 20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함께하며,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최정호

미도정식	39,000
미도뷔페	13,000
특수 요리와 미도정식만족하기	19,000

총정액 50% 직할 (우리는 항상권을 잊어버림)

234-0001

## 호텔이 국내 최대 관광 여행사

대한 호텔관광협회  
062-324-6930 027-6930

## 호텔이 여행사 장사기념행사

호텔이 여행사 장사기념행사

호텔이 여행사 장사기념행사

호텔이 여행사 장사기념행사

호텔이 여행사 장사기념행사